

# 문화관광으로 더 특별한 전북 만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정책포럼 개최... 토론회·문화관광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9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문화관광으로 더 특별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된 미래'라는 주제로 전북의 문화·관광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6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그리고 5개의 집중토론을 통해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장세길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광준 센터장(제주 서귀포문화도시센터)과 권순석 대표(강원 문화건설링 바라)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활동사례를 공유했다.

집중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전략과 연계해 음식, 교육, 웰니스, 실감콘텐츠, 지역 소멸대응 등 5개 주제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참여자는 "전북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또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전수관 현장 답사는 전북만이 가진 가치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9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이 도민들의 문화관광 향유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문화관광으로 더 특별한 전

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장터' 3회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중 3회 걸쳐 전주에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12월 1일 전주 팔복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 12월 11일 반월동 한강아파트 인도(방음벽 앞), 12월 13일 삼천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등 3곳이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 사용은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12월 이후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정액 국고로 반환된다.

문화장터에서는 전북지역 문화누리 협력가맹점인 '해밀'이 엄선한 미술·공예용품, 캠핑용품, 체육용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뿐만 아니라 일

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6만원 이상 또는 전액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통해 상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활성화가 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전라북도 및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14개 시·군이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1~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청자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안청자박물관-중국 상위도자고등연구원-자계시 청자문화전승원

부안청자박물관은 부안상감청자 교류와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위도자고등연구원 및 자계시 상림호 청자문화전승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부안상감청자의 위상을 알리고 고려시대 천하제일 명품의 위대했던 부안청자의 부흥에 나선다.

중국 저장성 상위구와 자계시는 중국의 춘추시대 초기청자 발원지로 율요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 두 지역은 세계도자기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자기질 청자를 만들었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상위구 인민정부에서는 도자기고등연구원을 설립하여 세계도에 작가들을 초대 워크숍 및 교류전시를 추진하고, 자계시 인민정부에서는 청자문화전승원을 설립하여 국제청자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중국청자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번 중국 도자기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부안관요 김문식 도예가의 중국 상림호 국제청자비엔날레 작품 출품을 계기로 청자라는 문화가 시작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 도시 간 전시교류와 인적교류를 통해 청자를 산업



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한 결과이다. 또한 협약을 계기로 중국에 없는 상감청자가 부안에서 발생 되었다는 사실을 청자의 발원지 중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중국 상위구 도자기고등연구원 및 자계시 상림호 청자문화전승원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기관의 도자문화교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기회로 기대"며 "앞으로 두나라가 도자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한 부안지역 도자산업 상생발전과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청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어느덧 성큼 다가온 송년을 맞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이번 연주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군산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더욱 성장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군산시민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선보인다.

1부는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으로 시작해 호소력 있는 연주자로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서현이 사라시테 카르멘 환상곡을 연주한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과의 합동연주로 마스카니의 '오펜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투우사의 노래', '축배의 노래'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선정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부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단편소설 스미리도프 작품의 '눈보라'를 연주한다. 9곡으로 구성된 '눈보라' 중에서 네 번째 곡인 울드 로망스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갈라쇼에서 선보여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곡이기도 하다. /군산=김석진 기자

## 풍어·무사안녕 기원 띠배 띄우다

'부안 위도(고섬섬)-띠배놀이, 소망과 바람을 보듬다' 12월 1일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이 주최하고 부안군이 후원하는 '부안 위도(고섬섬)-띠배놀이, 소망과 바람을 보듬다' 창작 공연이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공연의 주 무대가 되는 고섬섬(부안 위도의 옛 지명)의 나무들은 무성하나 크지는 않다. 이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의 털처럼 보여 고슴도치 '위'를 써서 위도로 불린다. '고섬섬'은 예부터 고려와 중국을 잇는 해상교류의 중요한 경유지이며 장보고의 해상무역로였다. 한반도 3대 조기 파시(생선시장)에 속하는 대규모의 황금어장으로 근 50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던 역사가 있던 곳이다.

대규모의 어부들이 몰리는 만큼 바다로 나아가는 어민들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리원당제(국가무형문화재 위도 띠배놀이)가 성행했는데 현재는 매년 1월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공연은 바다를 섬기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이야기를 칠산바다와 고섬섬, 원당 마누라와 바닷길, 그리고 풍어제를 알개로 하여 구성된 작품이다. 무대 위에는 섬을 형상화한 무대를 세워 섬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위도의 풍경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위도의 대월습곡과 추상절리, 공동화석지 등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이중 대월습곡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백합처럼 순백색으로 피어나는 위도 상사화는 전 세계에서 오직 위도에서만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문화유산



과 스토리가 가득한 위도를 테마로 모두가 꿈꾸는 소망과 바람을 바다와 섬, 신과 인간이라는 이미지에 담아 작품을 구성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공연은 주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서 예매방법은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좌석을 사전예매하거나, 현장에서 발권이 가능하므로 가족, 지인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러 오시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풍어와 무사안녕의 바람을 담아 띠배를 띄웠을 그들의 간절함과 삶의 모습들을 작품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어 뜻깊으며, 부안군의 위도 띠배놀이 주민에게 상기되며 가치가 재발견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관람하여 희망과 감동을 품복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